

기업지배구조 제도·규제 동향 MONTHLY

2026.09.30

I. 주요 개정 법률

▶ ① 공정위, 공시 위반 과태료 강화...반복 위반시 최대 50% 가중

한겨레 | 2026. 9. 7.

-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반복 위반에 과태료를 최대 50% 가중하기로 함(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)

▶ ② 한국, 집중투표제 시행...글래스루이스 “지분 분산 기업 더 큰 영향”

이투데이 | 2026. 9. 10.

- 국내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9월 10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지분이 분산돼 있거나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이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진단

▶ ③ [자본시장법 개정] ‘혈값 합병’ 공식 깬다...상장사 합병가액, 시가 대신 ‘공정가액’

조세일보 | 2026. 9. 15.

- 9.8 공포, 12.9 시행
- 상장사가 합병이나 분할,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에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변경,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의무화

→ 관련 세종 뉴스레터

II. 입법(안) 동향

▶ ① 꿈이 짝 껴안는다고?...소액주주에 도움될 제도 도입된다 [주末머니]

아시아경제 | 2026. 9. 11.

- 지난 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형 베어허그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

- 베어허그는 **M&A 전략** 중 하나로 인수 시도자가 대상 기업에 사전 예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적인 매수를 제안하면 경영진 및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제도
-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**의무공개매수제도**도 일반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금 회수 기회에서 소외되던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베어허그와 일맥상통

▶ ② “중복상장 시 ‘모회사 주주 동의·보상’ 의무화”…與 법안 발의

연합뉴스 | 2026. 9. 9.

-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, **모든 자회사 상장엔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**이 추진
- 개정안은 **중복상장 예외 요건**을 ‘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매출이 모회사 매출의 25% 미만이고,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 등 실질적 독립 경영이 가능한 경우’로 명확히 함

▶ ③ 국회 상임위 통과한 의무공개매수제도… M&A 시장판도 흔들나?

세계일보 | 2026. 9. 24.

- **의무공개매수제**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**국회 상임위 통과**, 여야가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내 통과 가능성 有
-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 지분을 사들여 25%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지분 25%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려면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(공개매수 대상은 **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%+1주**)

III. 정책 동향

▶ ① 코스피-코스닥 ‘상장폐지 시총 기준 강화’ 6개월 늦춘다

동아일보 | 2026. 9. 5.

-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최근 **코스닥 시황 악화**로 **상장폐지** 위기에 놓인 기업이 늘어나자, 9월 4일 상장폐지 제도를 일부 조정
- 당초 2027. 1. 1.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장폐지 유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(코스닥 200억원→300억원, 코스피 300억원→500억원)은 **6개월 유예해 2027. 7.부터** 시행하며, 형평성을 고려해 **코스피 시장에도**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과 시총 상향 유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

→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**금융·외환·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**

→ 한국거래소 공지사항 **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 안내(시가총액 300억원 요건 시행 6개월 유예) /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안내**

▶ ② 저PBR<주가순자산비율> 피하려면 ‘밸류업 공시’ 해야 하는데…난감한 상장사

헤럴드경제 | 2026. 9. 15.

- 한국거래소는 9.14(월)부터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**상장사들이** 자사의 저PBR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
- 현재 조회 결과는 해당 상장사만 확인할 수 있지만 **11월 2일부터** 저PBR 기업 명단이 일반에도 공개

▶ ③ 국민연금, 주주권 행사 보폭 넓힌다…의결권 사전공개 최대 4.4배 확대

한경비즈니스 | 2026. 9. 15.

- 국민연금, 투자기업 대상 첫 수탁자 **책임활동 설명회**를 열고 의결권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·주주활동 강화 방침

제시

- 위탁운용사의 책임활동 평가를 자금 배정·회수에 반영하고 자산군 확대 등을 담은 ‘스튜어드십 코드 2.0’ 마련 추진

▶ ④ 시총 미달 상폐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…거래 지속 지원

파이낸셜뉴스 | 2026. 9. 23.

- 시가총액 미달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**상장폐지**되는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**코넥스시장**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됨

→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**시총미달 상폐기업 코넥스시장 이전상장 관련 「코넥스시장 상장규정」 개정**

IV. 해외 이슈

▶ ① 美 SEC, 의결권 자문사 ISS 제소…소환장 이행 강제

한국경제 | 2026. 9. 7.

- **미국** 증권거래위원회(SEC), 의결권 자문사 ISS 상대로 소환장 이행 강제 소송 제기(9월 4일,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), **ISS가 의결권 추천·투표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완전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**이라고 밝힘
-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월가의 불만과 견제도 커진 상황
-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 규제 강화 시 **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표결 정책**에도 영향 가능

▶ ② [단독] 도시바 혼든 美패럴론, 행동주의 판 커진 韓진출

아시아경제 | 2026. 9. 11.

- 미국계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**패럴론캐피탈매니지먼트**가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
- 패럴론은 크레딧과 주식 롱숏 전략, 부동산, 전략적 자본투자 등을 아우르는 멀티전략 운용사지만 **국내에서는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배분 변화를 겨냥한 행동주의 전략을 펼칠 가능성**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

관련구성원

이동건

대표변호사

02-316-4297

tglee@shinkim.com

안효섭

수석전문위원

02-316-7264

이숙미

변호사

02-316-4016

smlee@shinkim.com

김명서

전문위원

02-316-1693

hsann@shinkim.com

msekim@shinkim.com

백상현

변호사

02-316-1774

shbaek@shinkim.com

최명

변호사

02-316-1798

mchoi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